

깊은 밤, 한양 저잣거리의
적막을 깨는 수상한 그림자가
있었다.

한양 저잣거리의 밤

오늘 밤에는
절대 놓치지 않는다.

한양 저잣거리의 밤

탁

한양 저잣거리의 밤

저잣거리의 물건들을
훔쳐간 놈이 바로
저것인가!

한양 저잣거리의 밤

그림자는 성벽을 넘어
험준한 인왕산 숲속으로
달아났다.

인왕산 산길

인왕산 산길

산길 깊은 곳까지
들어왔군. 기운이
심상치 않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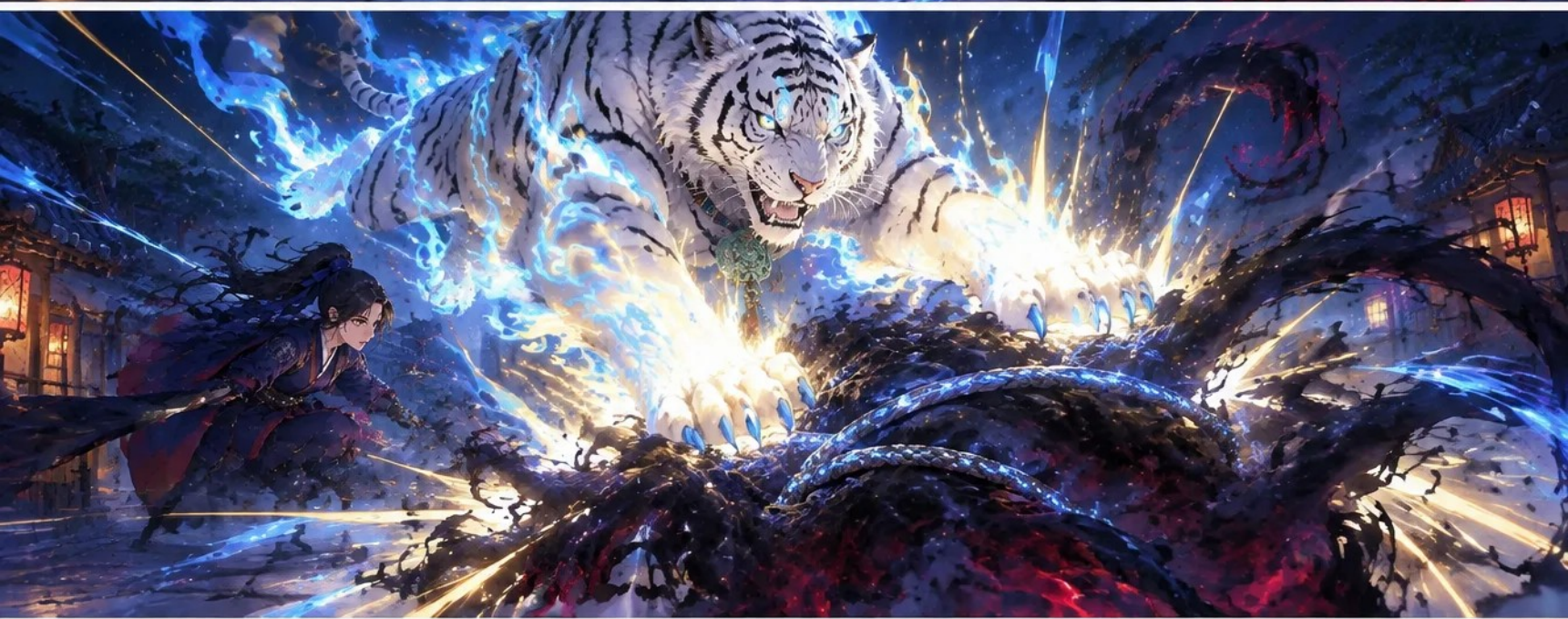
인왕산 산길

저건... 저갓거리에서
사라졌던 물건들?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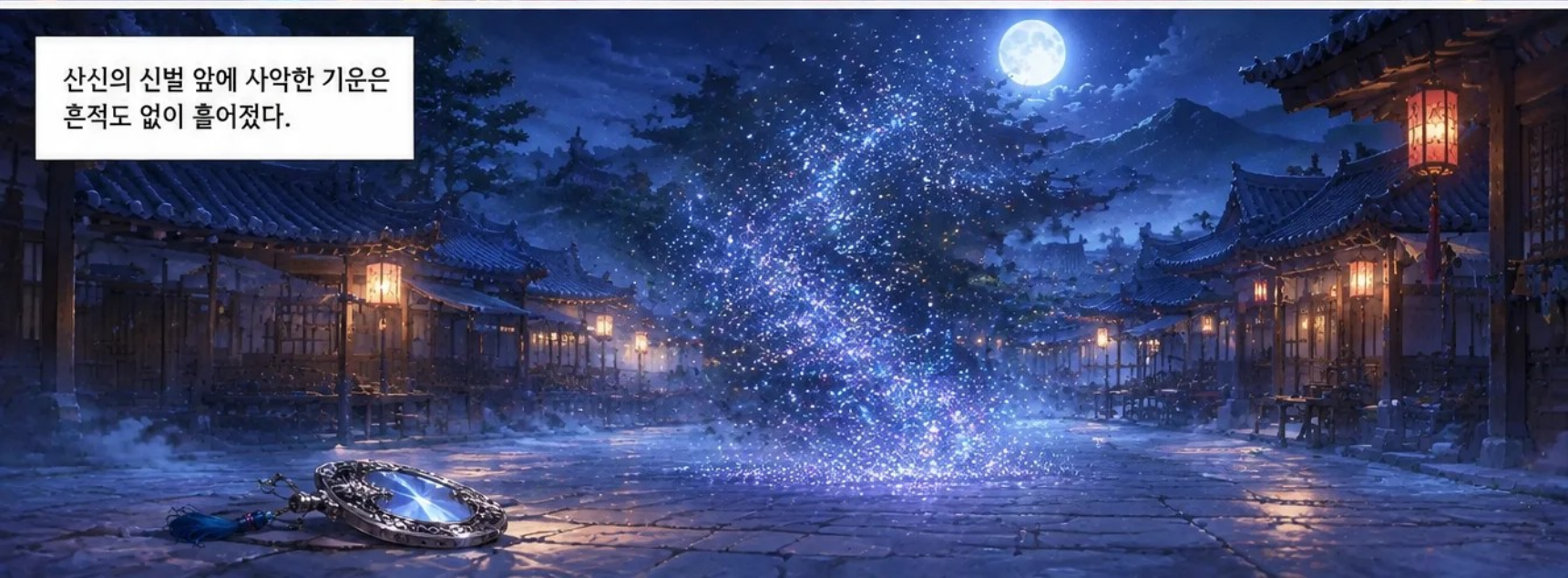
인왕산 산길

그때, 대지를 울리는
묵직한 포효가 숲을
뒤흔들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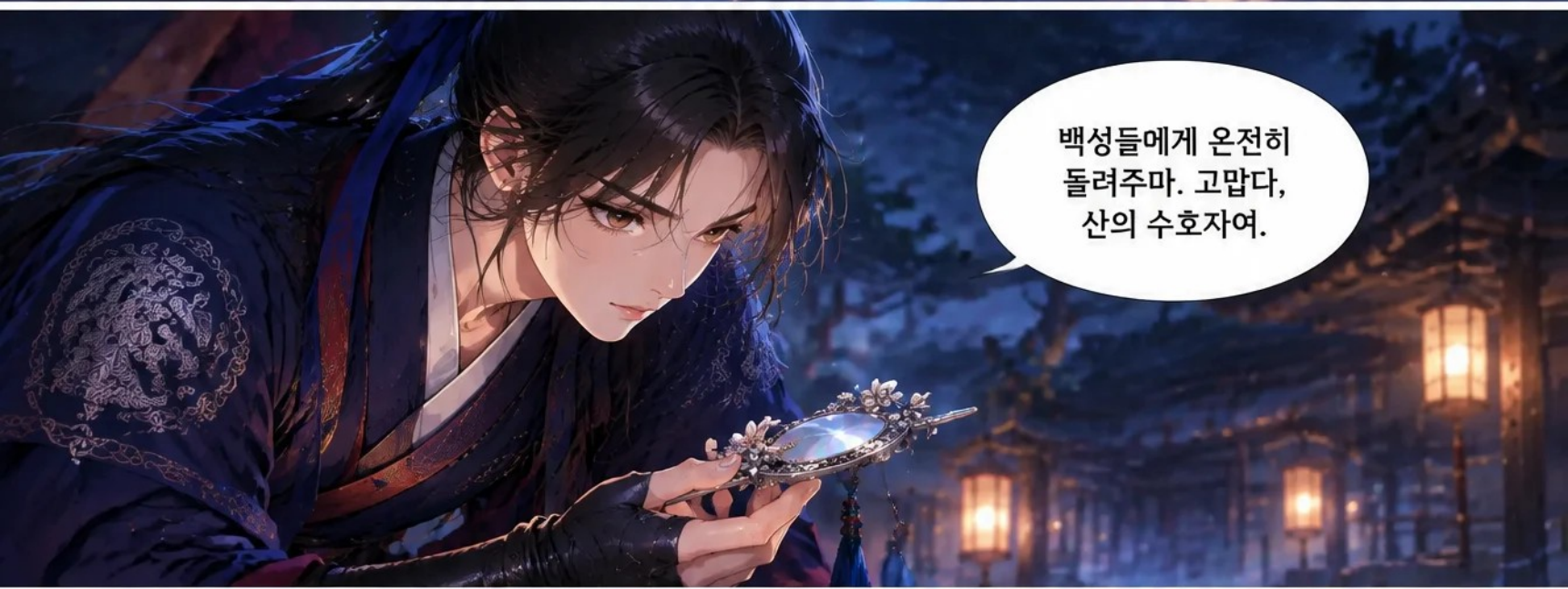
산신의 신별 앞에 사악한 기운은
흔적도 없이 흩어졌다.



네가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...
지키고 있었던 것이로구나.



백성들에게 온전히
돌려주마. 고맙다,
산의 수호자여.



새벽안개가 걷히고
저잣거리에는 다시 활기가
차올랐다.



인간과 신령의 경계에서,
보이지 않는 수호의 약속이
맺어졌다.